

칼럼



정기연 전 영암 신복초등학교 교장

오늘을 충실히 살자

오늘은 어제에 연결되어 이어 왔고 내일로 이어져 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이다. 경자년은 지난해이고 지나가 버린 과거이며 추억이다. 이제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보람찬 하루하루가 시작되고 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들은 보람찬 일 년을 만들고 그것이 이어져 성공한 일생을 만들어 가고 있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시간을 투자해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이다. 돈과 시간을 바꾸고 있다. 충실한 하루는 치밀한 계획과 실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하루하루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한 일 없이 보내 버린 시간은 알맹이 없는 허송세월이 되고 만다. 돈을 잃어버린 것을 아까워하면 서도 돈보다 더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은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간을 어떻게 소중하게 쓰고 있느냐에 따라 인간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 판가름 나기도 한다.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하루하루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활용하고 있으며 시간을 아껴 쓰고 있다. 충실한 하루하루가 모여 성공하는 삶의 금자탑을 이루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서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이며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이다. 성공도 실패도 현실인 오늘의 시간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 생각과 마음에 따라 만들 수 있다.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나 잘한 것들은 지나가 버린 것이며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살기는 오늘에 살면서 과거에 집착되어 있다면 무모한 일이다. 과거는 오늘 하루를 보람된 하루를 만들기 위한 참고 사항일 뿐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얽매어 있다면 벗어나야 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오늘을 새롭게 변화되어 맞이하여야 한다. 날로 새롭다는 것은 과거에 집착되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새로운 하루하루를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 하루의 시간이 되어

야 한다. 하루의 시작과 계획이 있는데 하루의 계획은 전날 잠들기 전에 세워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간밤에 세워 놓은 계획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천한다. 충실한 하루가 되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는 하루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매일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루의 할 일이란 잠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으로 구분되는데 일하는 시간을 짜임새 있게 운영해야 충실한 하루 계획표가 될 수 있다. 현실의 보람 있는 하루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견할 수 있다. 미래는 아무도 100% 확실한 예측을 할 수 없다. 미래는 과거를 거울삼아 오늘을 직시하고 그의 연장 선상에서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것인데 밝은 미래의 꿈을 이루려면 과거는 참고 사항이고 오늘 하루하루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미래에 대한 예견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경제적으로 자

유인이 되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 꿈을 이루려면 충실한 하루하루가 이루어져야 하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1년 예산과 계획을 세우게 되고 12월 중에 예산을 세워 국회를 통과시키고 새해에는 세워진 계획에 의해 진행된다. 하루의 계획도 전날 세워야지 아침에 세우고 있는 것은 충실한 하루가 되기 위해서는 합당치 못하다. 성공자가 되려면 좋은 건축물이 치밀한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해 이루어지듯이 성공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도와 시방서가 있어야 하는데 조감도 격인 인생 설계도가 있고 분야별 설계도인 1년 설계도가 있고 하루하루의 설계도가 있다. 설계도 없는 집을 지을 수 없듯이 성공해 가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도와 시방서가 있어야 하며 치밀한 하루하루의 설계도는 충실한 하루를 만들 수 있으며 벽돌 한 장 한장을 정성껏 쌓아서 훌륭한 건축물이 되듯이 충실한 하루하루는 성공한 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 과거는 참고 사항이며 과거에서 변해야 오늘이 새로워질 수 있으며 오늘이 충실한 하루하루가 되어야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성공한 미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내 인생을 성공자로 만들려면 나의 하루하루가 충실한 하루하루가 되어야 한다.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선택이 아닌 필수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남의 화재는 1만3169건이 발생했으며 주택화재는 2746건으로 21%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 시간동안 머무는 대부분의 공간 즉 일터 등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작동한다. 또한,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낮 시간대라 화재가 발생하면 쉽게 발견하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주거 공간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는 잘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취침 등 휴식을 취하느라 화재 발생 시 발견과 신속한 대응의 어려움이 있다.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실적은 저조하다. 매년 소방당국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캠페인 ▲영화상영관과 편의점 등 모니터를 활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등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여전히 저조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 사람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자신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사고는 항상 예고없이 찾아온다. '절대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일한 생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설문조사 결과는 소방안전에 대한 우리의 안일한 의식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위급한 상황을 알려주며 화재로부터 대피할 수 있게 해주며, 소화기는 화재에 대응 해 더욱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해준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비용은 약 3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당신 또는 당신의 가족을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3만 원은 절대 큰 비용이 아닐 것이다. 설치 또한 아주 간단해 5분 정도면 충분하다. 소화기는 각 세대별, 층별 1대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대 이상 설치하면 되고, 설치 방법 또한 어렵지 않다. 소화기는 구입 후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전원이 건전지로 되어있어 따로 배선작업이 필요없고 천장에 나사로 부착하면 된다. 이제는 더 미루지 말고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며 지금 당장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길 바란다. 이재욱/담양소방서담양119안전센터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장 화재의 대부분은 작은 용접 불씨에서부터 시작된다

매년 봄철 공사장 화재예방 대책 일환으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지만 올해도 공사현장 화재는 어김없이 발생했다. 올해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용접, 절단, 연마시 발생한 불티로 인한 화재 건수가 총 922건중 전라남도는 55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불티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사장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불티는 약 1,600~3,000°C의 이르는 고열을 발생하고, 쉽게 비산하고, 주변 자재 등에 날아들어 화재가 확대 될 수 있다.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를 사용할 시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두고,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을 쌓아두

거나, 놓아두면 안된다는 법을 꼭 지켜 주어야 한다. > 공사장에서 작업 시 안전관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받아 현장위험성이 있는지 확인 후 작업할 것. > 작업을 마친 후에도 주변을 확인하여 불티에 의해 녹거나 화재 징후가 없는지 확인 할 것. > 작업자가 기본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하고, 주변에 소화기, 마른모래, 불꽃받이 등을 비치한 후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공사장에는 공자자재, 스티로폼단열재, 목재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용접작업을 할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장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수칙준수를 통해 공사현장에서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예방에 힘써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관계자의 자율적인 화재안전관리 실천을 통한 안전불감증 해소가 필요하다.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며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내 가족, 내 삶의' 안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재욱/담양소방서담양119안전센터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TEL (061) 905-2011 FAX (061) 905-2012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FAX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 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